

# 이리신협 조합원 가입 선별 '파문'

### 가입비 3만원·교육·적금 등 요구에 민원 제기... 중앙회 시정 하달... 조합장 선거 관련인 듯

이리신협은 지난 3일부터 이리신협 조합원 가입시 신협 정관/규정을 근거로 조합원가입비 30,000원 이상과 그 이외 정기적금이나 조합원교육 등을 받은 분에 대해 조합가입을 허가한다는 사실이 전파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모 민원 제기자에게 신협중앙회 회신에 의하면 "조합은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자에게 조합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조합원 교육을 수료 한자에 한해 가입을 승인하는 것은 적합한 업무처리가 아닙니다"라고 했으며, 이러한 회신공문을 통해서 이리신협 임직원들의 까다로운 조합가입 절차를 취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과거의 가입절차 방법을 토대로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알려졌다.

현재 이리신협은 지난 정기 총회 때 조합원 배당이 없어서 여론의 불만을 샀는데 175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고 2018년 초까지 20,000여명 정도의 조합원이 확보될 상황에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 2월 이리신협 이사장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현 이사장 이외의 입지자들까지 열의를 가지고 신규 조합원 모집이 과열되고 있는 중에 신규 조합원 자격을 이리신협 설립 51년전에도 실시하지 않은 신협정관/규정근거로 까다로운 조합원 가입절차와 정기적금 및 조합원교육까지 부러뜨으면서 신규조합원 가입을 방해한다는 2017년 07월 27일자 언론보도를 보고 이리신협 조합원들

및 익산시민들은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리신협 이사장과 임직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보자 A 모씨는 "돈 있는 사람은 이리신협 조합으로 곧바로 가입이 되지만 없는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이리신협의 까다로운 가입승인 절차를 알고서 통탄을 금할 길 없다"며 "시민들이 거래하기 편리한 신협의 조합원이 되어서 대출받으려 했던 마음이 오히려 불편하고 부담한 신협이라는 내용을 알게 됐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같이 51년 역사를 가진 이리신협이 정기총회 및 아우회에서 시민가계자금지원, 복지사업 및 봉사사업 등에 앞장선다고 자랑하면서도 조합원들의 가입승인을 선별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특히 이리신협은 지난 조합설립 51년까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신협중앙회의 규정을 근거로 조합원 가입을 희망할 경우 조합비 30000원 이상 납입과 정기적금 가입 및 교육을 이수하고 이사장의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고 지난 7월1일부터 승인절차를 변경해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적 있다.

더욱이 이리신협은 항의하는 조합가입 희망자에게 중앙회의 지침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입을 외면하고 있어 신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협 중앙회 규정을 보면 제8조(조합원)에서는 익산시 주소거주자, 익산시 관내 직장 생활 및 사업장 등을

충족하는 분을 자격조건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 가입 지침 제9조(가입)에는 가입신청자에 대해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가입여부를 가입신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규정에 의한 가입 신청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금액 이상의 출자금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리신협은 조합원 가입을 과거 51년전에도 시행하지 않은 절차를 시행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정인 B 모씨는 "조합 이사장 승인 없는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없다. 내년에 있을 조합 이사장 선거에 대비해 이런 식의 절차를 만든 것 같다"면서 "조합을 성장시키지 않고 조합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사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 C 모씨는 "지난 7일 조합원 가입과 통장 개설을 위해 신협을 방문했는데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출자금 통장과 일반거래 통장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교육과 이사장 승인이 있어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는 규정은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행위 수순년을 쌓아온 신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이리신협 관계자는 "금융거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가입 조건에 여타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다"며 "민원발생으로 가입 승인절차를 예전으로 다시 변경했"

며 "교육은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복지 경제 등 신협의 3대과제를 교육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이리신협은 현 이사장 취임 후 과거 30000원미만 조합비만 납입하고 조합원을 유지했던 조합원들을 조합비 30000원 이상 납입해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시키기 위해 2016년 02월 이사장 보궐선거 시에도 납입독촉 통보도 하면서 독려했으나 결국 '4년 이상 거래가 되지 않으면 자격상실'을 할 수 있다는 신협규정을 근거로 6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는 3000여명 이상 조합원을 자격 상실시킨 적 있다.

그 이후 2017년에 들어와 2018년 2월 이사장 선거를 의식해서 과거 자격 상실시킨 조합원 및 익산시민들을 이사장후보 입지자들이 조합가입을 홍보 유도함으로써 평상시보다 2배 이상 조합원 가입이 밀려들고 있기에 조합원들은 일시에 증가하는 것은 단순한 계산상으로는 조합에 약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되나 실제로는 정기적금이나 기타 여신거래 등을 결합될 때 신규조합원 가입이 도움을 더 줄 것으로 판단해서 자격유무를 더욱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에 지난 27일자 언론보도 이후 신협임직원들은 신협중앙회에서 이와 같은 까다로운 조치를 금지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예전의 방법으로 전환해서 조합원 가입이 원활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알려졌다.

/익산=장영원 기자



## '바다안전 체험 너무 신나요'

### 군산해경, 아동 초청 인명구조 훈련 실시

여름 방학을 맞아 '바다안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군산해경에서 열렸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8일 '27일 초등학생과 학부모 150명을 초청해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지역 아동초청 대규모 인명구조 훈련'을 군산 앞바다에서 진행했다" 밝혔다.

3,000급 경비함 '태평양 13호'를 비롯해 소방정(艇), 민간자율구조선 등 선박 7척과 해양경찰 항공기가 동원된 이번 훈련은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화재진압, 승객구조 등 실제 상황의 모습을 연출했다.

처음 타보는 경비함에 들른 기분도 잠시 눈앞에서 펼쳐지는 구조

요청 신호탄 발사, 익수자 구조 모습에 아이들의 환호성은 점점 더 커져갔다.

이어 순식간에 날아든 헬기에서 가는 줄에 매달려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에서는 함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참관 교육을 마치고 직접 여객선 탈출 체험에 나선 아이들은 미끄럼틀 모양의 강하식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 질주하는 보트체험까지 그야말로 오감만족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모두 마쳤다.

함정 운항 시간에는 인기 만점의 물놀이 안전교실, 심폐소생술 시범,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등 유용한 교육시간으로 채워졌다.

/군산=장 현 기자

## 익산시, 가축 폭염피해 예방당부

익산시는 불볕더위에 축산농가의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가축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여름은 가축이 고온스트레스로 인한 사료섭취량이 감소하고 발육지체, 번식장애 및 면역력 약화 등으로 폐사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농가에서는 축사 차광막 설치 및 단열재 시공, 지붕위에 물 뿌리기 등 지나친 온도상승을 방지하고 수시로 환기시켜 축사의 과습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야 한다. 가축에게 신선한 물과 양질의 사료, 비타민과 무기물 등을 제공하여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 더 큰 폭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 수송동, 불법쓰레기와의 전쟁 나서

### 쓰레기에서 단서 찾아 투기자 추적·홍보활동·현웃수거함 철거 등 시행

수송동행정복지센터가 여름철 양심 없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가지역에 대해 불법투기 쓰레기와의 전쟁에 나섰다.

지난 28일 수송동은 상가지역과 원룸지역 일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 7톤을 수거하며, 불법투기된 쓰레기에서 영수증과 우편물, 인적사항 등 단서를 찾아 투기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또한 주변상가 100여 곳을 방문하여 올바른 재활용품 분류배출 방법과 일반쓰레기 봉투 사용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의견

을 청취했다.

수송동 롯데마트 일일 상가밀집지역에서는 매일 수십톤의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캔, 유리병이 분류되지 않고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어 악취와 벌레 등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이 되면 상가지역 뿐만 아니라 공원 벤치 등 야외에서 음주 후 뒤처리를 하지 않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 휴식공간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송동에서는 매주 2~3일 노인일자리

와 연계한 환경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불법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웃수거함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있으며 현웃수거함 인근 지역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불법투기 상습투기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수송동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CCTV와 현재 설치된 불법투기예방 CCTV 4대를 활용, 자원 순환과 협력해 불법투기자를 색출해나가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장 현 기자

## 원대 LINC+사업단-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업무협약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과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가 지역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송문규 사업단장과 김상범 센터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근 원광대에서 열렸으며, 상호협력력을 통한 영상제작실습 및 지역연계형 캠퍼스디자인 사업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특히 양 기관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과 인턴십, 창·취업 연계를 위한 공동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광대 LINC+사업단은 최근 글로벌 산학협력 사업의 일환인 하계 글로벌 벨캠퍼스디자인(카자흐스탄) 프로그램과 무바2일 창작프로그램인 창의대접 등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도시재생대학 수료식 열려

2군산시가 주최하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2017년 군산도시재생대학의 하반기 과정이 종강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종강식에서는 각 팀에서 수강한 지역민이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습득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하반기 도시재생대학은 6월 2일 개강해 2회의 선진사례답사(청주, 천안, 익산)와 탐방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8개팀에 지역 주민 및 활동가 등 61명이 참여하여 군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인력을 육성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하반기 과정에서는 기초과정 수료자들이 마을축제팀, 마을잡지제작팀, 개북인턴으로 나눠 각각의 주제에 맞게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했다. /군산=장 현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ARS 1577-8179)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